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3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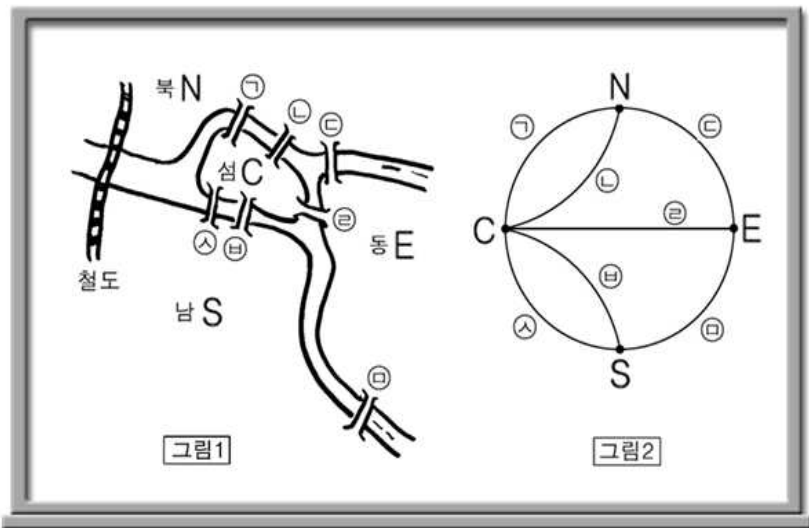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여학생이 마지막에 이어서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쇠귀에 경 읽고 있네.
- ② 언 발에 오줌 누고 있네.
- ③ 아니 뎀 굴뚝에 연기 나겠니?
- ④ 숲이 검정을 나무라는 격이네.
-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니?

2. (물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올바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3. (물음) 강연자가 추가로 제시할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의 관직인 ‘삼정승’ 중에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높았다.
- ② ‘남이 자기를 칭찬하면 오른쪽 귀가 가렵다.’라는 속담이 있다.
- ③ 왼손과 관련된 형용사 ‘외다’는 옛날에는 ‘그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선비들은 돈을 천하다고 여겨서, 돈을 만질 때는 왼손을 사용하였다.
- ⑤ 옛날의 관리들은 나쁜 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좌천(左遷)’이라고 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비만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 ② 수업 시간에 잘 조는 경향이 있다.
- ③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 ④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 ⑤ 아침밥을 챙겨 먹는 학생보다 학습 효율이 낮다.

5. (물음) 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② 개인적인 고민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핵심 내용을 요약·제시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철새가 날아가는 다음 그림을 활용하여, 삶과 연관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함께 날아감 → 서로 협력하는 삶
- ② 때가 되면 날아감 → 순리에 맞는 삶
- ③ 줄지어 날아감 → 질서를 존중하는 삶
- ④ 높이 떠서 날아감 → 여유를 추구하는 삶
- ⑤ 한 방향으로 날아감 →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7. 공익 광고를 만들기 위해 <보기>처럼 장면을 구상하였다. <조건>에 따라 [가]와 [나]의 문구를 만들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장면 1]

[가]

→

[장면 2]

[나]

- < 조 건 >
- [장면 1]에서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 [장면 2]에서 시청자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 ① [가] :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 음주와 운전,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세요.
- ② [가] : 음주 운전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나] :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 ③ [가] : 맥주 한 캔이 무엇을 취하게 할까요?  
[나] : 맥주 한 캔이 우리의 윤리의식을 취하게 합니다.
- ④ [가] : 음주 운전, 한 잔의 술로 당신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나] : 단 한 개의 맥주 캔도 안 됩니다.
- ⑤ [가] : 당신은 맥주 한 캔으로 얼마나 많은 고철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 : 당신은 음주 운전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8. <보기>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 청소년 문화의 허와 실**

㉡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인 위주인 사회는 이 시기를 단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불과 몇 년의 기간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 그리고 청소년은 성인도 아동도 아닌 자신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다. 그들만의 특유한 삶의 방식과 욕구가 있다. 흔히 그 욕구는 성인 위주의 사회 질서 속에서 억압받게 된다. ㉣ 그 결과 그들이 대중가요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대중가요에 열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이런 상황을 ㉤ 오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상업적 문화 사업이다. 그들은 청소년에게 알맞은 문화적 출구를 제공하기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 문화의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문화 산업의 구조 등 더 넓은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① ㉠은 글 전체의 내용이 더 잘 드러나도록 '청소년 문화의 문제 해결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은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주어를 '청소년기는'으로 바꾸어야 하겠어.
- ③ ㉢은 흐름상 어색하니 문맥적 연결을 고려해서 '그러므로'로 고치는 것이 옳아.
- ④ ㉤은 논리적 비약이 있으므로 그 앞에 논거를 보충하여 논리적 흐름이 드러나도록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은 '악용'으로 고쳐 써야 문맥상 자연스러워.

9. <보기>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실태  
 ㄱ. 최근의 경제 불황  
 ㄴ.  ㉠

II. 본론  
 1. 문제의 원인  
 ㄱ. 일자리 감소  
 a.  ㉡  
 b. 일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c. 창업 감소  
 ㄴ. 구직자의 태도  
 a. 대기업 선호 의식  
 b.  ㉢

2. 해결 방안  
 ㄱ.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a. 대기업의 직원 채용 시 보조금 지급  
 b. 중소기업 육성책 실시  
 c. 창업자금 대출 시 지급 보증  
 d.  ㉣  
 ㄴ. 구직자의 의식 변화 유도  
 a.  ㉤  
 b.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 의지 함양

III. 결론 :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촉구

- ① ㉠ :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현실
- ② ㉡ : 대기업의 채용 규모 감소
- ③ ㉢ : 자기 계발 의지 부족
- ④ ㉣ : 청년층 해외 연수 지원
- ⑤ ㉤ : 유망한 중소기업 홍보

10. 정부기관을 예상 독자로 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세계 각국의 성인 남자 흡연율

국가	흡연율 (%)
한국	68.2%
미국	28.1%
영국	28%
독일	36.8%

\*1995년 발표자료

(나) 우리나라 흡연율 변화 추세

연도	성인 흡연율 (%)	청소년 흡연율 (%)
1990	75.3%	23.9%
2000	67.6%	35.3%

(다) 흡연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질병은 폐암입니다. 특히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5세 전후에 일찍 흡연을 시작했을 경우에 20대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95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 보고에 의하면 위암, 간암, 자궁암의 빈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폐암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호흡기 내과 전문의와의 인터뷰에서 -

(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흡연율 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4.1%로 나타나 전년도의 52.3%에 비해 8.2%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흡연율 하락에는 정부가 추진해 온 금연홍보 교육, 금연구역 확대, 금연상담전화 개설 등의 금연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자의 10.3%가 보건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금연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문 기사에서 -

- ① (가), (나)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 청소년 금연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② (가), (다)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흡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 금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가), (라)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높음을 들어, 흡연율이 낮은 나라에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있다면,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④ (나),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지 못하면 폐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들어 조기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나), (라)를 활용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성인 남성 흡연율 하락을 가져온 금연정책을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11.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잘못 말한 사람은?

< 보 기 >

선생님 :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있다'와 '없다'는 다른 용언과 달리 활용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있다'와 '없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합시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방식※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 : ×

	㉠	㉡	㉢
	현재형 관형사형어미 '-는'	감탄형어미 '-구나'	청유형어미 '-자'
동사	○	×	○
형용사	×	○	×

- ① 철현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② 영미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③ 동국 : ㉡로 보아 '없다'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④ 선경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⑤ 광민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2. <보기1>의 원칙에 따라 <보기2>의 밑줄 친 단어들을 국어사전에 수록하는 수행 평가를 해 보았다. 가장 바르게 정리한 것은?

< 보기 1 >

국어사전 수록의 원칙 :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는 형태는 같지만 어휘의 의미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없는 낱말로 국어사전에는 다른 표제어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반면 다의어(多義語)는 하나의 어휘가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라 하고,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달라진 의미를 '주변 의미'라 하여 하나의 낱말로 수록한다.

- < 보기 2 >
- ㄱ. 그는 사진 동호회에 들기로 했다.
  - ㄴ. 오른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 ㄷ. 몸을 깨끗하게 씻고 법당에 들었다.
  - ㄹ.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들고 따라오시오.
  - ㅁ. 낮이 안 들어 벼를 베는 데 어려움이 많다.

	들다 <sup>1</sup>	들다 <sup>2</sup>	들다 <sup>3</sup>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ㄴ, ㄹ	ㅁ
⑤	ㄱ, ㅁ	ㄴ, ㄷ	ㄹ

【13-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나의 소년 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 길을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 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과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저 앓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목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목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가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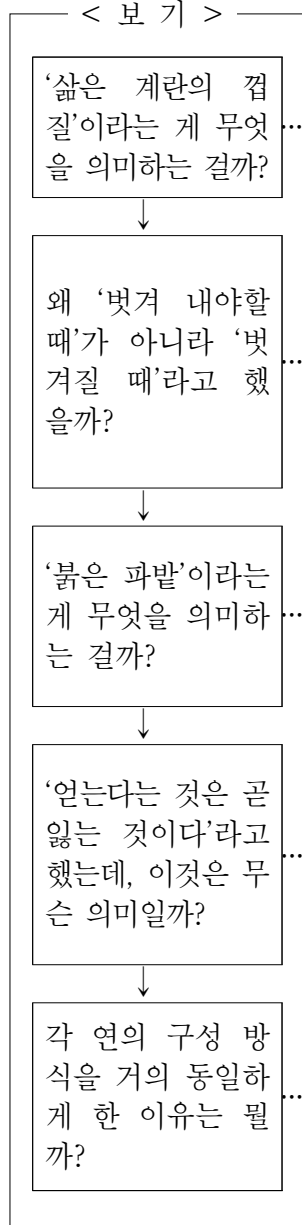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순 어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흐름이 바뀌면서 어조가 변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4. (나)의 ㉠과 시적 정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에서 / 작은 깃을 얹고 다리 오  
그리고 지내다가 / 이 보오얀 봄길을 찾아 문안하여 나왔느  
뇨. - 유치환, '춘신(春信)' -
- ②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 온몸으로 가자. / 허공 뚫고 / 온몸  
으로 가자. /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 박혀서 /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 고은, '화살' -
- ③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 잠든 세상 밖으로 새  
벽달 빈 길에 뜨면 /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 ④ 사립 너머 멀리 / 면사무소 지붕 위의 올림픽기 휘날리고 /  
예의 확장기에선 올림픽노래 울려 퍼져도 / 우리의 기쁨은  
화려한 데 / 시끄러운 데 있지 않고 / 노상 가슴 설레고 가슴  
뿌듯한 이 일 /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하루해 뜨고 진다. -  
고재중, '텃밭에서의 하루' -
- ⑤ 1947년 봄 / 심야(深夜) /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의 바  
다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境界線) 용당포. // 사공은 조심  
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嬰兒)  
를 삼킨 곳. /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  
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

15. <보기>는 (다)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들이다. 그 의문에 대  
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아래 행에서 '~ 듯'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목은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거야. .... ㉠

'벗겨 내야할 때'와 '벗겨질 때'는  
강제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억지로 떨쳐  
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떨쳐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거  
야. .... ㉡

'붉은 파발'은 새싹이 돋아나는  
장소잖아. 이것은 목은 것과 새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비유  
적으로 나타낸 걸 거야. .... ㉢

이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관계를 말한 것 같아. 얻기 위해서  
는 먼저 기존의 것을 잃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  
을 거야. .... ㉣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화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해서 드러  
내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곳이다.
- ③ ㉠은 화자의 아픔을 심화시키는 곳이고, ㉡는 화자의 아픔을  
해소시키는 곳이다.
- ④ ㉠은 화자에게 과거를 보게 하는 곳이고, ㉡는 화자에게 미  
래를 보게 하는 곳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곳이고, ㉡는 화  
자에게 방향을 유발시키는 곳이다.

【17 -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사는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되지는 않는다. 역사는 과거의 모든 사실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특정하게 선택된 사실들의 의미를 인과적으로 연결한 논리적 구성물이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역사로 기록되는 이유는 이 사실이 조선의 개국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창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사물이 발견되고, 이를 통해 조선 개국의 과정이 다른 방향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면 위화도 회군의 역사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과정에서 자료가 새롭게 선택될 수 있고, 역사적 의미 또한 바뀔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선택은 언제나 역사가에 의해 결정되며, 해석은 필연적으로 의미 해석이므로 역사는 그냥 주어진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인 셈이다.

역사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하지만 소설가의 상상에 의해 쓰인 역사 소설과는 다르다. 역사와 역사 소설은 모두 선택된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같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르다. 역사 소설은 선택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에 근거한 ‘문학적 허구’를 펼쳐가지만, 역사는 사실을 조사한 후, 탐구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또한 소설은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이 갖는 의미를 좁고 깊게 파고든다면, 역사는 개별적 사건을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어떤 유적, 유물, 문서의 발굴은 어디까지나 단편적 사실의 발굴이지 그 자체로서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물들이나 사실들은 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논리적·의미론적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만 비로소 역사적 의미를 띠고 역사의 일부로 편입된다. 역사는 어떤 사실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더라도 그것이 개별적 차원을 넘는 전체적인 ㉠ 틀 안에서 파악되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것은 개별적 존재의 의미로만 남아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역사가에게 필요한 것이 역사관인데, 역사관이란 역사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가리킨다. 순환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 마르크스 역사관 등 다양한 역사관이 있다. 역사가는 자신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역사관에 따라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이 ‘진보’, ‘발전’이라는 ㉡ 틀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반복’, ‘흔동’이란 이름으로 그 의미가 삭제되기도 한다. 그래서 ㉢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서술될 수 있고,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과거 사실의 의미와 깊이가 변할 수 있다. 곧 역사는 선택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 창조적인 작업이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역사는 창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② 역사는 인과성을 가진 논리적 구성물이다.
- ③ 한번 기록된 역사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 ④ 역사와 역사 소설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 ⑤ 과거의 모든 사실이 역사의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

18. ㉣을 구체화하여 보충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포석정	귀족들의 유흥 장소	신라 폐망의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배층의 놀이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	신라의 국가적 행사 규모와 신성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
㉡ 연개소문	폭력적인 독재자	개인적인 권력욕 때문에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인물
	고구려의 영웅	고구려의 기상을 국내외에 떨친 전쟁 영웅
㉢ 조선시대 궁녀	왕의 시녀	규율과 법도에 얽매어 쓸쓸하게 살아간 희생자
	궁중의 전문 관리자	궁중 문화를 발전시킨 전문직 여성
㉣ 박지원의 문학	고문에 대한 반항	중국 고문을 본받지 않아 문학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음
	독자적 문학 세계 구축	풍자와 해학으로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근대성을 앞당김
㉤ 거북선	관옥선을 개량함	조선 전함(戰艦) 관옥선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응용함
	돌격선 역할	적선(敵船) 깊숙이 파고들어 일본 수군의 전열을 흐트러뜨림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과 ㉡를 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 쓴 것은?

- ① ㉠ - 경향, ㉡ - 체제      ② ㉠ - 방법, ㉡ - 의도
- ③ ㉠ - 목표, ㉡ - 전략      ④ ㉠ - 계획, ㉡ - 수단
- ⑤ ㉠ - 구조, ㉡ - 관점

20.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화도 회군과 유사한 성격의 역사적 사례들을 알아봐야겠어.
- ② 새로운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 ③ 동일한 체제를 다룬 역사서와 역사 소설을 비교하면서 읽어 봐야겠어.
- ④ 역사박물관을 찾아 과거의 사실들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살펴 봐야겠어.
- ⑤ 과거의 유적이거나 유물이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탐 구해 봐야겠어.

【21 - 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각 세포의 형질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정보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 들어 있다. 따라서 유전 정보의 적절한 발현이 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며, 생물체의 형질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전 정보가 인간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지능, 그리고 성격까지도 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었다. 유전자 연구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에 도움은커녕 피해만 주므로 도태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극단적인 우생학\*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나) 인간과 유전자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약 1세기 전 골턴(Galton)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근래에 ㉠ 쌍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이란성 쌍생아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생아들을 비교한 것으로,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심증을 굳히게 하였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각종 범죄, 조울증, 정신 분열증, 알코올 중독증 등 주변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성향들에도 유전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질병을 대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찾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다) 인간의 유전병은 대략 3,000여 가지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밝혀낸 것은 단순한 유전병 100여 가지에 불과했다. 그런데 심각한 유전성 신경질환인 ‘헌팅턴병’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염색체로부터 DNA를 뽑아 제한효소로 잘라지는 패턴을 정상인과 비교한 결과, 그 패턴이 특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제4번 염색체에서 헌팅턴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이는 유전학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그러나 아직 많은 유전병은 그 원인 유전자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또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해도, 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정보가 인간이 가진 46개의 염색체 중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염기 서열로 되어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더구나 지능이나 피부색처럼 여러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여 형질을 나타내는 경우, 각 유전자의 상호 관계와 역할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마) 특별한 증세와 관련된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그 실험 결과들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유전자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간의 특성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연구자들의 과제이다.

\* 우생학 :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21.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세포의 형질은 유전정보와 관련이 있다.
- ② 인간의 성격은 유전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 ③ 일부 유전병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하였다.
- ④ 유전자 연구에 힘입어 유전병을 치료하고 있다.
- ⑤ 유전자의 상호 관계 규명은 유전학의 과제이다.

22. ㉠의 결과 중,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일란성 쌍생아인 A와 B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 ② 이란성 쌍생아인 C와 D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흡사하다.
- ③ 이란성 쌍생아인 E와 F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 ④ 일란성 쌍생아인 G와 H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판이하다.
- ⑤ 이란성 쌍생아인 I와 J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흡사하다.

23.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보기>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일보 -

- ① 글 (가)
- ② 글 (나)
- ③ 글 (다)
- ④ 글 (라)
- ⑤ 글 (마)

24.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전쟁으로 건강한 청년들은 전사하고, 징집되지 않은 약자가 살아남아 2세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결국, 알코올중독자와 신체허약자만 남겠다고 한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허약자와 병자의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 정권은 불치병환자나 정신병자 등을 ‘살 가치 없는 삶’으로 간주하여 30여만 명의 허약자들을 거세하였다. 또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지녔다고 하여 유태인이나 반체제인사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다.

- ① 나치 정권 몰락 후 우생학 연구는 상당히 활발해졌겠군.
- ② 나치 정권의 우생학자들은 유전자의 역할을 맹신했겠군.
- ③ 나치 정권은 유전자 연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겠군.
- ④ 나치 정권은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정보가 있다고 보았군.
- ⑤ 나치 정권의 우생학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상당히 심했군.

## 【25 - 2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8일 갑신(甲申), 개었다.

정사(正使)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서, 냉정(冷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10리 남짓 가서 산모퉁이 하나를 접어들자 태복이가 갑자기 몸을 굽히고 말 앞으로 달려 나와서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백탑(白塔)이 현신함을 아뢰오.”

한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말 모는 하인이다. 아직 산모퉁이에 가려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빨리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모퉁이를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 것이 보일만치 벌어진 광경은 어마어마했다. 내 오늘에 처음으로, ㉡ 인생(人生)이란 본디 아무런 의탁한 곳이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 아, 참 좋은 울음 터로다. 한 바탕 울 만하구나.”

하였다. 정 진사가,

“이렇게 ㉣ 천지 간의 큰 안계(眼界)를 만나서 별안간 울고 싶다니, 웬 말씀이오.”

하고 묻는다. 나는,

“참 그렇겠네. 그러나 아니오! 천고의 영웅(英雄)이 잘 울었고, 미인(美人)은 눈물이 많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는 듯한 울음은 듣지 못하였소. 사람이 다만 칠정(七情) 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고, 칠정 모두가 울 수 있음을 모르는 모양이오.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는 것이오. 불평과 억울함을 풀어 버림에는 소리보다 더 빠름이 없고, 울음이란 천지 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오. 지극한 정(情)이 우러나오는 곳에, 이것이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면 울음이 웃음과 무엇이 다르리오.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오히려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지 못하고, 교묘히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 울음을 짜 맞추었으니, 이로 인하여 초상을 당했을 때 억지로 ‘애고’, ‘어이’ 따위의 소리를 부르짖지. 그러나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온 지극하고도 참된 소리란 참고 눌러서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영기어 감히 나타내지 못한다오. 그러므로, 저 가생(賈生)\*은 일찍이 그 울 곳을 얻지 못하고, 참다못해서 별안간 선실(宣室)\*\*을 향하여 한 번 크게 울부짖었으니, 이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해괴히 여기지 않으리오.”

하니, 정 진사는,

“㉤ 이제 이 울음 터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의당 당신과 함께 한바탕 울어야 할 것이나, 우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고른다면 어느 것을 골라야 하겠소?”

한다. 나는,

“저 갓난아기에게 물어 보시오. 그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올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가. 그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에는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 없지. 이러한 기쁨이 늙도록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리 없으며 의당 즐겁고 웃어야 할 정만 있어야 하오. 그런데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사무친 것같이 자주 울부짖기만 하니, 이는 곧 인생이란 신성(神聖)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이 마침내는 죽어야만 하고 또 그 사

이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골고루 겪어야 하기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저절로 울음보를 터뜨려서 스스로를 조문(弔問)함인가. 그러나 갓난아기의 본정이란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거요. 무릇 그가 어머니의 태중(胎中)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흰한 곳에 터져 나와 손을 펴고 발을 뻗어 그 마음이 시원할 것이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오.”

- 박지원, 「한바탕 울 만한 자리」 -

\* 가생 : 중국 전한(前漢) 문제 때의 유명한 문인 겸 정치가로 이름은 의(諱)임

\*\* 선실 : 한나라 문제가 거처하는 궁궐

(나) 비방의 도로 드러 눈 감고 누웠더니,

딴마도 갓잡다고 샴공이 니르거늘,

고터 니러 나와 보니 십 니는 남앗고나.

왜선 십여 척이 예선\*초로 모다 왔네.

그제야 돛출 치고 비 머리의 줄을 미야,

왜선을 더지으니 왜놈이 줄을 바다,

제 비에 미여 노코 일시의 느리으니

선형(船行)이 안온하야 좌슈포(佐須浦)로 드러가니,

신시(辛時)\*\*는 호여 잇고 복선(卜船)\*\*\*은 몬져 왔다.

포구(浦口)로 드러가며 좌우를 둘러보니,

㉦ 봉만(峰巒)이 삭납(削立)하야\*\*\*\* 경치가 괴절(奇絶)하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예선 : 다른 배를 끄는 배. 예인선

\*\* 신시 : 오후 6시반~7시반

\*\*\* 복선 : 짐을 실은 배

\*\*\*\* 삭납하야 : 깎아지른 듯 서 있어

(다) 어허 저거, 물이 끓는다. 구름이 마구 탄다.

둥둥 원구(圓球)가 검붉은 불덩이다.

수평선 한 지점 위로 머문 듯이 접어든다.

큰 바퀴 피로 물들며 반나마 잠기었다.

먼 뒷섬들이 다시 환히 열리더니,

아차차, 채운(彩雲)만 남고 정녕 없어졌구나.

구름빛도 가라앉고 섬들도 그림진다.

끓던 물도 검푸르게 잔잔히 숨더니만

어디서 살진 반달이 함(艦)을 따라 웃는고.

- 이태극, 「서해상의 낙조」 -

25. (가) ~ (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다)에는 화자의 주관적 감상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나)에는 화자가 이동한 경로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깨우치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다)의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26. (가)에서 ‘나’의 체험과 인식 과정을 <보기 2>의 도표로 정리하였다. (가)와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도표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1780년 진하별사(進賀別使) 박명원을 따라 약 5개월간 북경을 거쳐 열하까지 다녀와 쓴 기행문이다. 그 당시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은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 칭하면서 청나라를 오랑캐로 멸시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평소 현실 감각이 결여된 유학자들이 주도하는 조선의 정황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그는 청나라의 선진 문화를 기존의 한족의 문화인 화(華)의 문물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보고,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 보기 2 >

(가)는 ‘열하일기’ 중 ‘도강록’의 한 부분이다. (가)에서 박지원은 여행 도중에 울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는 이것을 갖난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울음을 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나’의 체험 과정	삼류하를 건너고 산 모퉁이를 통과 중	㉠	한바탕 울고 싶음
갖난아기에 비유한 ‘나’의 인식 과정	㉡	넓고 환한 곳으로 나옴	울음

- ① ㉠에 들어갈 내용은 ‘나’가 드넓은 벌판을 보는 것이다.
- ② 체험 과정 3단계는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③ ㉡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벗어나는 출산의 과정인데, 여기서의 태중은 당시 조선의 정황을 빗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인식 과정 2단계의 ‘넓고 환한 곳’은 시대 상황과 연결하면 ‘나’가 견문한 청나라의 선진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⑤ 인식 과정 3단계의 ‘울음’은 심리적 갈등에서 복받쳐 나오는 것이다.

27. ㉠ ~ ㉣에 대한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일기의 형식으로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 ② ㉡ - 오랜 여행에서 오는 객수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 지극한 감정은 하나로 통한다는 깨달음을 전제하고 있다.
- ④ ㉣ - 눈앞이 탁 트인 상황을 의미한다.
- ⑤ ㉣ - ‘정진사’가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28. ㉠과 유사한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3점]

- ① 오늘도 다 새거다, 호피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밍여든 네 논 점 밍여 주마.  
울 길헤 뽕 빠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 ②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뎡든가  
진실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③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쓴 뭍은 물에 산영(山影)조츰 잠겼세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옌가 흐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야.  
고국산천(故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 말동 흐여라.
- 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柚子) | 안이라도 품엄 즉도 흐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없슬식 글노 설워흐느이다.

29. (다)에 나타난 표현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를 축약하여 운율을 맞추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④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으로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30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부는 마음이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산의 옥결(玉玦)과 같았다.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니 부귀를 바랄 것인가.

홍부 아내가 하는 말이,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밥소. 안자(顔子) 단표(簞瓢)는 주린 염치로 삼십 조사(早死)하였고, 백이숙제(伯夷叔齊)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

홍부가 하는 말이,

“낮을 쇠우에 슬훈고.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때를 뉘 아들이 맞는단 말이요?”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손가.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밥소.”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 치장을 볼 것 같으면 편자 없는 헌 망건에 박쫓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근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띠를 흉복통에 둘러 띠고, 떨어진 헌 고의(袴衣)에 청울치로 대님 매고, 헌 짚신 감발하고 세 살 부채 손에 쥐고, 서홉들이 오망자루 꿈무늬에 비스 차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쇠소(灑掃) 같이 어스비스 건너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멩에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흥부 마음은 즐거우나 놀부 심사는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흥부는 할 일 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고?” / “내가 흥부요.” / “흥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요? 비읍니다. 형님전에 비읍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공할손가.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시오.”

애걸하니, 놀부놈의 거동 보소. 성낸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기를,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고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괴목케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며, 가룻 되나 주자 한들 북고왕 염소독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복이나 주자 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 찬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거먹 암캐 부엌에 누웠거든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계미나 주자 한들 구중방(九重房) 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돌이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돌을 굶기며, 것섬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네 필이니 너 주자고 소를 굶기라. 염치없다, 흥부놈아.”

하고, ㉡ 주먹을 불끈 쥐어 뒤편지를 짹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켜어 손잡스님의 매질하듯 원화상의 범고 치듯 아주 쿵쿵 두드러니, 흥부 울며 하는 말이,

“㉢ 아이고 형님 이것이 웬 일이요. 방약무인 도적(盜跖)이도 이보다는 성현이요, 무거불측(無據不測) 관숙(管叔)이도 이보다는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 이다지도 극악한가.”

<중략>

㉣ 놀부 마음에 흐뭇하여 매통에 열 냥씩을 정하고 박을 켜다.

“슬근슬근 툽질이야.”

힘써 켜고 보니 한 때 거문고쟁이가 나오며 하는 말이,

“우리 놀부 인심이 좋고 풍류를 좋아한다 하기에 놀고 가옵네.”

‘동덩동덩 동덩동덩’ 하기에, 놀부가 이것을 보고 쟈보를 원망하는 말이,

“툽도 잘 못 당기고, 네 콧소리에 보화가 변하였는가 싶으니 소리를 모두 하지 말라.”

하니, 쟈보 샅받아야겠기에 한 말도 못하고 그리하라 하니, 놀부 일변 돈 백 냥을 주어 보내고, 또 한 통을 타고 보니 무수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와 하는 말이,

“우리는 강남황제 원당시주승(願堂施主僧)이라.”

하니, 놀부놈이 어이없이 돈 5백 냥을 주어 보내니, 쟈보 하는 말이,

“지금도 내 탓이냐?”

하고 이죽거리니, 놀부 이 형상을 보고 통분하여 성결에 또 한 통을 따 오니, 놀부 아내가 말리며 하는 말이,

“제발 덕분에 켜지 마오. 그 박을 켜다가는 패가망신할 것이니, 덕분에 켜지 마오.”

놀부놈이 하는 말이,

“좁스러운 계집년이 무슨 일을 아는 체하여 방정맞게 날뛰는가.” 하며

또 한 통을 타고 보니 천여 명 초라니\*\*\*가 ㉤ 일시에 내달으며 달려들어 놀부를 덜미잡이하여 가로 떨어치니, 놀부가 거꾸로 떨어지며,

“아이고 아이고 초라니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생사람을 병신 만들지 말고 분부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 작자 미상, 「흥부전」(경판 25장본), -

\* 청루 : 기생집

\*\*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 :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

\*\*\* 초라니 : 나례(難禮)를 거행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기괴한 계집 형상의 탈을 쓰고 있음

### 3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운율감이 느껴지는 어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 ③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 ④ 평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31.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남존여비적인 사고로 놀부 처를 꾸짖고 있군.
- ② 쟈보는 놀부의 책망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군.
- ③ 흥부는 형제 간의 우애를 내세워 놀부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군.
- ④ 놀부는 흥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박대하고 있군.
- ⑤ 흥부는 놀부의 평소 성품을 들어 흥부 처의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군.

### 32. ㉠와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고토(甘呑苦吐)                      ② 개과천선(改過遷善)
- ③ 조삼모사(朝三暮四)                      ④ 인과응보(因果應報)
- ⑤ 점입가경(漸入佳境)

### 33. ㉠ ~ ㉤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시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고루한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 ② ㉡ : 기존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몰락한 양반이 생겨났다.
- ③ ㉢ : 돈과 재물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
- ④ ㉣ : 가족 간의 결속력이 점차 약해져 경로사상도 약화되었다.
- ⑤ ㉤ : 계약적 고용 관계를 토대로 하는 임금 노동자가 등장했다.

【34- 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언어의 형성은 그 언어 사용자들의 역사, 문화와 함께 진행됐다. 그런데 언어권마다 세상을 분절(分節)하고 표상(表象)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언어의 차이가 세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낳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여 언어화하는지 살펴보자. 인간의 언어는 물리적인 세상 그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고 이해한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인지하는 태도는 서로 다르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그림> 루빈의 잔

<그림>에서 검은색을 배경으로 흰색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형상을 생각해 보면 잔으로 보인다. 반대로 흰색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검은색에 초점을 ㉠ 맞추면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로도 볼 수 있다.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 같은 그림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인지 과정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추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사람들은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변 상황이나 세상사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사물이나 현상을 주관적으로 수용하여 이해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인간이 그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모습, 소리, 냄새 등등의 물리적인 실제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이것을 기호화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능력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눈은 천만 가지의 색깔을 식별할 수 있는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영어에서는 4천 가지 색 이하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본 색깔을 11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색깔을 11가지로 ㉡ 분절한 것이다.

한편, 빨간색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빨간색이라는 범주\* 속에서 하나의 빨간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똑같은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신호등의 빨간색을 보고 운전기사는 차를 세운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범주화함으로써 그들의 주위 환경에 대처하는 것은 생존과도 관계가 있다. 인간이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면 이러한 소리의 질을 하나하나 헤아리지 않고 단지 위험의 표시로 범주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A] 낮선 문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명확하게 구분 짓는 범주에 대하여 그 문화 속의 사람들은 그러한 범주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쉽게 묘사할 줄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감지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쌀과 관련하여 쌀, 밥, 모, 벼, 누, 죽, 누룽지 등의 여러 개의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에스키모인은 '눈[雪]'을 200여 개의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환경, 즉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별개의 사회에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 언어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축적된 개념 형태의 체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언어는 그 자체의 범주와 또 그 범주를 나타내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는 주관적인 세상을 제 나름대로 분절하고 추상(抽象)하고 표상(表象)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 속에 저장된 세상을 이해한다는 뜻이 된다.

\* 범주 :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

3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대상을 규명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기 있는 소설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썼을 거야.
- ② 한시는 조상의 풍류를 담고 있는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야.
- ③ 훌륭한 번역은 외국의 문화가 생소하지 않도록 의역하는 것이군.
- ④ 신문 기사는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반영해야 하겠군.
- ⑤ 재미있는 기행문은 여정에 따라 풍부한 문화를 담고 있어야 하는군.

36. ㉠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 ① 젓가락의 짝을 맞추어 밥상에 올려놓았다.
- ②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 ③ 그의 가족은 늘 같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춘다.
- ④ 컴퓨터를 조심해서 분해한 다음, 본래대로 맞추어 보아라.
- ⑤ 어머니는 가족 중, 아버지의 입맛에 맞추어 음식을 하신다.

37.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계 : 도, 레, 미, 파, 솔, 라, 시
- ② 원소 :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염소
- ③ 사상가 : 노자, 맹자, 순자, 장자, 묵자
- ④ 도형 :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 ⑤ 구기 : 탁구, 정구, 야구, 축구, 배구, 농구

【38 - 4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마음씨 착하고 성미가 무던한 조만득은 골목 이발소에서 일하며, 20년 가까이 반신불수로 누워 있는 어머니와 불량배처럼 가솔과 사고를 일삼는 남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 한다. 그러나 그는 누적된 생활고와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미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빈자 무료 진료 대상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조만득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생활한다.

그는 미스 윤이 약을 가져오는 일을 번번이 못마땅해하곤 하였다. 더욱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일을 그는 무엇보다 질색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증세를 위해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진료절차가 생략될 수 없었다. 민 박사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의 진료 스케줄을 지키게 하였다.

조만득 씨는 그 모든 귀찮은 일들의 원인이 민 박사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은 너무 정성이 지나쳐서 탈이야.”

어느 날 조만득 씨는 그가 싫어하는 물리 치료를 받고 나서 심기가 몹시 언짢아 있었다. 그는 병실로 돌아오자 미스 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난 저 사람을 내보내고 말겠어. 정성도 좋지만 귀찮아서 더 견딜 수가 없구만.”

조만득 씨는 마침내 자신의 주치의를 바꾸겠노라 선언했다. 그리고는 잠시 혼자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하지만 나도 그의 충성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

백지장에다 금세 ‘일억 원정’의 금액을 적어 넣고는 그걸 민 박사에게 전하였다.

“이만한 돈이면 그 사람도 아마 자기 병원을 하나쯤 차릴 수 있겠지.”

자기가 나눠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무실을 내보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눈앞을 스치는지, 다음날만 되면 모든 사실을 깡그리 잊어 먹고 마는 것이 그의 환자다운 약점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조만득 씨는 매사가 그런 식이었다. 모든 게 만족스럽고 모든 게 행복했다. 누구를 보아도 싱글 싱글 웃었고,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이 만만했다.

[A] 미스 윤은 차라리 조만득 씨의 그런 처지가 부러워질 지경이었다. 그게 아무리 비정상이라곤 하지만 그에게서 굳이 그런 충족감을 빼앗을 필요가 있는지 시일이 갈수록 의심스러워지고 있었다. 조만득 씨가 그 백만장자의 옷을 벗어 놓고 말짱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할 그의 황량스런 현실을 알고부터 그런 느낌이 더욱 짙었다.

조만득 씨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를 그런 엉터리 백만장자로 만들어버린 주범이기 때문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미스 윤은 조만득의 치료에 대하여 걱정하지만, 민 박사는 그가 다시 미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조만득의 과대망상증을 치료하여 퇴원시킨다.

하지만 미스 윤도 이날은 아직 그걸 끝내 집어낼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아직 꺼림칙한 명우리 같은 것이 가슴속에 남아 있는 미진스런 느낌뿐, 그녀가 그 민 박사에게 묻고 싶은 것의 정체를 그날은 아무래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 민 박사님이나 저도 조만득 씨가 돌아가야 할 현실의 일부가 아닐까요.

— 우리가 그의 현실의 일부라면 우리에게도 그의 병세의 변화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조만득 씨의 병태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란 그를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자신의 현실과 맞서게 하는 데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과장님께서는 언제나 그가 현실을 외면하고 달아나는 쪽만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거꾸로 그가 현실을 못 견뎌서 그에 대한 복수로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현실 쪽을 깨부숴 버리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의 현실의 일부라면 우리 자신도 그가 거꾸로 깨부숴 없애려는 세계의 일부로서 그의 복수를 감내해야 할 처지가 아니겠어요. 것처럼 무서운 비극이 있겠어요. 우리는 과연 그의 현실의 일부로서 또는 그의 병세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일부로서 그가 감행해 올 복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깨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 만약에 그런 각오가 없다면 그건 옳게 책임을 지는 방법이 못 되지 않을까요. 편한 책임만 명분으로 내세우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범죄가 아닐까요?

그날 미스 윤이 민 박사에게 물었어야 했던 질문들은 대개 그런 비슷한 것들이었다. 그랬더라면 아마 비극을 미리 막아낼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미스 윤에게 그런 생각이 떠올라 온 것은 때가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비극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야 뒤늦게 그걸 생각났기 때문이다.

미스 윤에게 생각을 일깨워 준 그 비극적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민 박사나 미스 윤이 불길한 예감 속에서 못내 궁금해 하고 있던 조만득 씨의 소식은 그러나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두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조만득 씨는 두 사람의 걱정처럼 자신이 다시 미쳐 버린 일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미쳐 버린 대신 그의 앓아 누운 어머니와 말썽쟁이 아우를 어느 날 밤 차례로 목을 눌러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곧 경찰서로 달려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조만득 씨가 통원검진을 받으러 오기로 되어 있던 날로부터 사흘 뒤에 전해져 온 소식이었다. 그래 마침내는 올 것이 오고만 격이라고나 할까.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걸로 보아서 위인이 아주 미쳐버린 건 아니었어. 하긴 미치지 않은 쪽이 더욱 비극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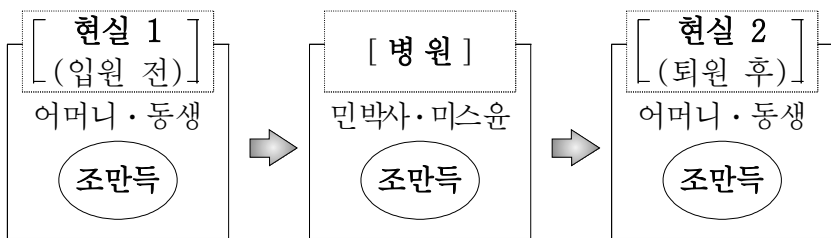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서 조만득 씨를 만나고 온 민 박사 말이었다.

— 이청준, 「조만득 씨」 —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두 인물이 동일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결말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분석한 후 사건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로 작품 안의 한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대화나 행동보다 상황에 대한 특정 인물의 생각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9. 위 글의 사건 전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 ① [현실 1]의 상황이 조만득의 발병 원인이다.
- ② 조만득이 [현실 1]에서 [병원]으로 간 것은 [현실 1]에 맞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 ③ [병원]에서 조만득은 [현실 1]에서와 달리 행복하게 생활한다.
- ④ [병원]에서 민 박사와 미스 윤은 조만득의 치료에 대해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 ⑤ [현실 2]에서 조만득은 [현실 1]에서와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인다.

40. [A] 부분을 <보기>와 같이 고쳐 쓸 때, [A]에 비해 강조된 것은?

< 보 기 >

민 박사는 자기에게 엉터리 백지 어음을 주는 조만득 씨의 병증을 알고 있었다. ‘과대망상증’. 민 박사는 그러한 병의 치료 방법이나 절차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우선 조만득 씨와 있는 곳은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야 했다. 그리고 조만득 씨에게 진짜 현실을 깨우쳐 주면 될 것이었다. 문제는 조만득 씨의 태도였다. 조만득 씨는 철저하게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동료 환자는 물론 병원 직원들 모두를 부하 직원으로 대했다. 민 박사를 대하는 태도도 완강했다. 민 박사와 면담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버텼다. 그러나 민 박사는 조만득 씨를 결국은 치료해서 현실로 돌려보낼 것이었다. 민 박사에게 삶이란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현실과 맞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 ① 소설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 ② 민 박사와 조만득의 대립 관계가 드러난다.
- ③ 민 박사의 내면적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 ④ 조만득의 발병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조만득의 상태에 대해 동정하는 심리가 드러난다.

41. 다음은 위 소설을 각색한 연극 대본의 마지막 장면이다. 결말을 소설과 다르게 각색한 극작가의 의도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제 26장 민 박사의 방**

민 박사, 진료 일지를 읽는다.

**[민 박사]** 조만득 씨의 증세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살해한 후 그의 자아는 깨진 유리잔처럼 조각나 버렸고, 행복한 망상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오로지 돈을 세는 일에만 몰두하며 윤 간호사의 말에 아기처럼 따를 뿐이다.

--- 윤 간호사 말에 아기처럼 따르는 조만득. 마임, 동화책 속의 한 장면처럼.

**[민 박사]** 처음에 그는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지금은 현실을 깨부수는 쪽으로 변했다. 그는 다시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혼란에 싸여있다.

조만득, 쭈그리고 앉아 돈을 세고 있다. 배우들, 조만득의 주위를 에워싸고 돈 세는 동작에 맞추어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한다.

**[배우들]** 백만 원, 이백만 원,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천만 원, 이천만 원,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억, 백억, 천억, 이천억, 삼천억, 사, 오, 육, 칠, 팔, 구, 억!  
-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 중에서 -

- ① 돈 세는 장면을 삽입하여 물질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 ② 조만득 주변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다양한 계층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③ 고심하는 민 박사의 모습을 통해 환자는 반드시 치료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④ 조만득의 행동을 과장하여 희화화함으로써 조만득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하였다.
- ⑤ 조만득의 병이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을 통해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42 - 4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세기 들어 서양미술은 대상의 사실적 묘사보다 회화의 조형적 특질을 강조하는 추상회화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회화의 조형 요소는 어떤 면에서는 음악의 구성 요소인 가락이나 리듬, 박자 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가사가 있는 노래도 있지만, 음악은 주로 추상적인 가락이나 리듬, 박자에 의해 구성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미술 역시 주제나 내용 없이 색이나 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으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추상회화는 노래에서 가사를 없애듯 그림 속에서 스토리나 사실적인 표현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조형 요소에 의지해 제작한 작품이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추상회화 이전의 서양 미술을 ㉡ 문학적인 미술로, 추상회화 이후의 서양 미술을 ㉢ 음악적인 미술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추상회화의 출현은 서양 미술에서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추상회화는 1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 사실은 추상회화의 속성과 관련해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전쟁 직전의 유럽 사회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발달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생활이 풍요해졌지만 빈부 격차가 극심해 계급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1차 대전은 이러한 서양 문명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전쟁이었다. 이성과 합리주의는 문명의 파괴와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고,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하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미술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등장한 추상회화는 이성과 합리주의에 근거한 과학적인 원근법과 광학법칙, 해부학의 이해 등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서양 미술의 사실주의 전통을 모두 부정했다. 그러면서 추상회화는 점점 비구상적으로 변해갔다.

추상회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사람은 러시아 출신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였다. 그가 추상회화를 시도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다.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마치고 화실로 들어온 그는 ㉣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을 옆으로 잘못 놓은 것이었다. ㉤ 착각임을 알고 난 다음에 본 그림은 이전처럼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주제와 ㉤ 형상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칸딘스키의 일화는 미술이 주는 감동이 이야기나 형상을 넘어 조형 요소만으로도 가능함을 말해준다. 칸딘스키는 색채와 선, 면 등의 조형 요소가 일상의 뒤에 감춰진 깊은 정신적 진리를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느낌을 중시한 예술가였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가 이런 느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현하려 했는가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추상회화는 결국 외부 세계를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표현한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상회화에서는 외부의 형상을 제아무리 열심히 모방하고 잘 표현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화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미술은 다른 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므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 극단적인 모순과 갈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 추상회화는 이렇듯 인간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인간 내면의 ㉥ 울림을 담아내려 했다.

42. 위 글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상회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② 추상회화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 ③ 음악과 추상회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④ 음악과 미술을 접목한 통합 예술은 가능한가?
- ⑤ 시대적 상황은 예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칸딘스키의 최초의 추상 수채화인 「추상적 구성」

- ①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대상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추상화로군.
- ② 과학적인 원근법이나 광학법칙과 같은 서양 미술의 사실주의 전통을 벗어난 그림이군.
- ③ 옆으로 잘못 놓였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주제나 형상을 알아볼 수 없군.
- ④ 그림 속에서 구체적 대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색채와 선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야겠군.
- ⑤ 어지럽게 움직이는 덩어리들과 자유로운 붓놀림에서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작가의 내면을 느낄 수 있군.

44. 문맥적 의미로 보아 ㉠, ㉡과 관계 깊은 것끼리 적절하게 묶은 것은?

	㉠	㉡
①	a, c, d	b, e
②	a, c, e	b, d
③	b, e	a, c, d
④	c, d, e	a, b
⑤	c, e	a, b, d

【45 - 4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터넷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 ‘스트리밍(streaming)’이란 말을 접하곤 한다. 스트리밍이란 무엇일까? 공급자가 자료를 주고 수신자가 이를 받아 재생하는 과정이, 스트리밍이란 말뜻과 같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용량이 아주 큰 파일을 전송 및 재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과정이 끊김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스트리밍이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 노래를 듣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노래 한 곡의 파일 전체를 10이라고 하자. 1을 다 듣고 나면 준비되어 있던 2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쭉 이어보면 우리는 끊김 없이 1부터 10까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노래를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1부터 10까지 일단 모두 다운로드 해 두고, 오늘 당장 듣거나 며칠 후에 듣거나, 1부터 듣거나 3부터 듣거나 하는 방법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1 하나만 받아서 들으며, 듣는 시간을 이용해 2나 3을 준비해 가며 듣고 파일은 저장하지 않는 방법이다. 각각의 방법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노래 파일을 소장할 목적이 아니라면 아마도 뒤의 경우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 한 번 듣고 말면 충분할 것을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용량이 큰 파일이라도 같은 크기로 조각조각 나눠서 준비해 두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조각을 가져가고, 그다음 필요한 조각이 이용자에게 도달하면 자료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갈 것이다. 스트리밍 기술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행하는 동안 다음 조각 파일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버퍼’와 ‘버퍼링’이다. ‘버퍼’란 전송 받은 파일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첫 번째 조각 파일을 전송 받아 재생하는 중에 그다음 조각 파일이 버퍼에 도달한다면 파일 재생이 물 흐르듯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 파일이 미처 버퍼에 쌓이지 않았다면 재생이 물 흐르듯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때 몇 초간 ‘버퍼링’이란 글자를 보게 된다. 버퍼링이란 재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버퍼링이 끝나면 다시 재생이 시작된다. 그때부터는 끊김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가끔 노래나 영상이 잠시 멈추거나 끊기는 경우가 있다. 물 흐르듯 끊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스트리밍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초고속 통신망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송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송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진정한 스트리밍이 실현될 것이다.

스트리밍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 음악 서비스나, 인터넷 방송,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이 스트리밍 기술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보려는 사람이 영화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불러와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 스트리밍 기술은 이런 생각을 멋지게 실현한 것이다.

45. 위 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철수와 영미는 살던 집[A]에서 바로 옆집[B]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전날 두 사람은 이삿짐을 정리할 순서에 맞춰 크기가 같은 각각의 상자에 포장해 놓고 이사 준비를 마쳤다. 이사 당일 철수는 [A]에서 짐을 빼 [B]로 운반하고 영미는 [B]에서 운반된 짐을 정리했다.

- ① [A]에서 이삿짐을 잘 분류해 크기가 같은 상자에 싸 두어야 스트리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군.
- ② 이사를 하기 위해 [A]에 싸 둔 각각의 짐은 서버가 전송하기 위해 준비한 조각 파일에 해당하는군.
- ③ 철수가 [A]에서 [B]까지 짐을 갖다 주기만 한다면 스트리밍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군.
- ④ 철수가 [A]에서 짐을 가져다 영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B]에다 일단 쌓아놓는 장소는 버퍼에 해당하는군.
- ⑤ 영희가 [B]에 도착한 짐을 다 정리했는데 다음 짐이 안 온다면 스트리밍 중에 끊김 현상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겠군.

46. ㉠과 가장 유사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 ① 평생에 한 번밖에 입지 않을 웨딩드레스를 구태여 사 입을 필요는 없다.
- ② 내년 겨울에 입기 위해 겨울이 끝날 때 싸게 파는 옷을 미리 구입해 놓을 필요는 없다.
- ③ 사장에게 직접 보고해도 될 사항을 굳이 과장, 부장, 상무를 거쳐 보고할 필요는 없다.
- ④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자기 집을 장만해 둘 필요는 없다.
- ⑤ 매일 매일 신형 휴대 전화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서둘러서 휴대 전화를 살 필요는 없다.

47. 위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의 전제를 말할 때, ( ) 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스트리밍 기술은 ( ) 생각을 담고 있다.

- ① 불편한 것을 줄이려는
- ② 법률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 ③ 전통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 ④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 ⑤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48 - 5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관현악단의 연주회장에서 연주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휴대 전화의 벨 소리가 울려 음악의 잔잔한 흐름과 고요한 긴장이 깨져버렸다. 청중들은 객석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황급히 호주머니에서 휴대 전화를 꺼내 전원을 끄는 이는 다름 아닌 관현악단의 바이올린 주자였다. 연주는 계속되었지만 연주회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음악을 감상하던 많은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공공장소의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음 문제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 속에는 ‘개인적 도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도구들 덕분에 우리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득은 개인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사이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넘어서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개인적 도구가 넘쳐남에 따라, 개인과 개인, 도구와 도구, 그리고 자신의 도구와 타인과의 관계 등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다.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 개인의 차원에서는 편리와 효율을 제공하는 도구들이, 전체의 차원에서는 불편과 비효율을 빚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 개인적 도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을 규제하는 것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소리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담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성세대의 추억 속에 담긴 다듬이 소리, 엿장수의 가위 소리, 뽕튀기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저장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리에는 계절의 변화가 담겨 있고 지역의 삶과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즉 시공간적 다양성을 담아내는 문화의 구성 요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음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소리를 통해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도시계획에서는 이것을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사운드스케이프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간 연출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심에 작은 분수와 물길을 만들어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리의 명소’, ‘지키고 싶은 소리의 풍경’ 등을 정해 지역 문화를 부각시키고, 주민들에게 소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관광 요소로도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개인적 도구가 공공의 공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궁극적으로 소리의 문화적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48.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소음의 사례
- ② 소음의 규제 방법
- ③ 소리의 문화적 가치
- ④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
- ⑤ 소음 문제와 물질문명과의 관계

49. ㉠의 일반적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자전거가 인도를 질주하여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②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기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 ③ 골목길에 주차한 차들로 인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 ④ 도로 공사 때문에 차량을 우회 통과하게 하여 운전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 ⑤ 휴대 전화의 전파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 기구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50. ㉡을 활용하여 ‘소리의 풍경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사전 조사를 하여 <보기>의 결과를 얻었다. 적절하지 않은 계획은?

< 보 기 >

- 지리적 특징 - 해발 고도가 낮은 해안 도시이다.
- 생태적 특징 - 옛날부터 귀뚜라미가 많이 살았다.
- 특산물 - 바닷물을 이용하여 만든 두부가 유명하다.
- 풍속적 특징 - 이 고장의 수호신으로 ‘까치’를 숭배하고 있다.
- 문화유산 - 고깃배를 타는 사람이 많아서 뱃노래가 유명했다.

- 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건널목의 보행 신호음으로 선정한다.
- ② 까치를 도시의 상징물로 정하고 ‘까치의 날’을 지정해 축제를 한다.
- ③ 노인들을 방문하여 사라진 뱃노래를 발굴하여, 그 노래를 선착장에서 들려준다.
- ④ 해안 도로에 제방을 쌓되, 도로에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방을 설계한다.
- ⑤ ‘두부 거리’라는 관광지를 만들고, 관광객이 두부장수의 종소리를 들으며 관람하도록 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